

清華簡 <芮良夫毖>주해(하)*

이 연 주,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清華簡<芮良夫毖>역주(하)
3. <芮良夫毖>발굴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앞서 <芮良夫毖>주해(상)에서는 <芮良夫毖>의 시대적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제1수를 주해하였다. 상편에서 밝혔듯이, <芮良夫毖>는 2013년 1월 발표된 清華簡¹⁾ 3차 연구결과에 포함된 6종 8편 중 한 편이며, <耆夜>, <周公之琴舞>와 함께 清華簡에 포함된 중국 고대(周代)의 逸詩로 그동안 다른 문헌에 언급된 바 없다. <芮良夫毖>는 西周 말 厲王(기원전 879~841) 시기의 대부였던 芮의 良夫가 당시의 어지러운 시대상황과 정치에 대해 대신들과 왕에게 훈계와 경고하는 내용으로²⁾, 186구의 長詩 두 首로 이루어져 있으며, 戒

* 본고에 대해 세심한 조언과 꼼꼼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 이연주: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張崇禮: 中國 北華大學 中文系 教授

- 1) 清華簡(清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清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다수의 중요한 문헌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清華簡에 대해서는 이연주의(2014)에서 개괄하였다.
- 2) 高中華·姚小鷗(2016)는 <芮良夫毖> 序에 나오는 '厥辟'이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풀이하듯 주나라의 천자가 아니라 諸侯이며, 따라서 <芮良夫毖>는 芮良夫가 諸侯와 御事들을 훈계하는 詩라고 주장했다. '厥辟'이 천자가 아닌 諸侯를 가리킨다는 주장은 잘 검토해

敕의 의미를 갖는 선진시기의 愍詩이다. 형식에 있어서는, 《尙書》 일부 편에서 보듯 먼저 序를 통해 시를 쓴 背景을 밝힌 후 이어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편에 이어 <芮良夫愍> 제2수를 주해하고 <芮良夫愍>의 발굴이 갖는 학술적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清華簡<芮良夫愍>역주(하)³⁾

【간문1】⁴⁾

二 放 (啓⁵⁾)曰：“天猷[1]畏矣，豫[2]命[3]亡(無)成。生□□難(難)，不秉純德(德)[4]，元(其)戾(度)[5]用[6] 達 (失)[7]縈(營)[8]。莫好安情(靖)[9]，于可(何)[10]又(有)靜[11]？莫甞(稱)[12]昏(厥)立(位)，而不智(知)允[13] 滄 (盈)[14]。莫□□□，□□□□型。自 起 (起) 儻 (儻)[15] 盧 (虐)[16]，邦甬(用)不 寧 (寧)。

보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나, 만일 이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본고 (상)편 【간문5】 , 【간문9】 , 【간문10】의 내용을 볼 때 <芮良夫愍>가 대신이나 諸侯에게 훈계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3) 본 역주는 清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者라 함)가 연구 발표한 《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上海: 中西書局, 2012)과 그밖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참고하고 또 자체 연구해 작성하였다. 張崇禮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연주가 우리말로 역주하였으며 시대적 배경과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주석에서 개별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는 학자명과 발표연도를 명시하였다.
- 4) 주해를 위해 시의 내용에 의거하고 압운을 참고해 임의로 제2수의 간문을 【간문1】 ~ 【간문6】으로 구분하였다.
- 5) 본고 상편 【간문1】의 【주석】 [13]과 주 17)에서 설명한 '終'과 함께 '曷'도 악장형식의 일종이지만, 여기서 '曷'는 詩의 篇章을 나타낸다. (曹建國(2016)참고)

[주석]

- [1] 猷는 가히~할 만하다의 뜻이다.
- [2] 豫는 태만하다의 뜻이다. 《玉篇·象部》에 “豫는 게으르다(怠)의 뜻”이라고 했다. 《大戴禮記·五帝德》에 “富而不驕, 貴而不豫(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존귀하면서도 게으르지 않으면)”이라고 했다.
- [3] 命은 天命이다. 《論語·堯曰》에 “不知命, 無以爲君子也(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라고 했다.
- [4] 純德은 순수한 德行이다. 《國語·鄭語》에 “建九紀以立純德, 合十數以訓百體(九紀를 세워 純德을 확립하며, 十數를 합하여 百體를 가르치며)”라고 했는데, 韋昭 《注》에 “純은 순수하여 잡되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 [5] 度는 도모하다, 계획하다의 뜻이다. 《爾雅·釋詁上》에 “度는 도모하도의 뜻”이라고 했다.
- [6] 用은 접속사로, 그리하여, 그래서의 뜻이다.
- [7] 失은 틀리다, 잘못하다의 뜻이다. 《廣韻·質韻》에 “失은 잘못하도의 뜻”이라고 했다.
- [8] 營은 ‘營’의 통가로, 미혹되다의 뜻이다. 《說文》에 “營은 미혹되다의 뜻”이라고 했다. 《淮南子·本經》에 “目不營於色, 耳不淫於聲(백성들이 순박하면 눈은 색(色)의 유혹을 받지 않으며, 귀는 소리에 탐닉하지 않으며)”라고 했는데, 高誘 《注》에 “營은 미혹되다의 뜻”이라고 했다.
- [9] 靖은 ‘靖’의 통가로, 안정되다의 뜻이다. 《爾雅·釋詁上》에 “靖은 다스려지다의 뜻”이라고 했다. 《廣雅·釋詁一》에 “靖은 안정되다의 뜻”이라고 했다.
- [10] 于何는 어찌, 어떻게의 뜻이다. 《詩·小雅·十月之交》에 “彼月而食, 則維其常; 此日而食, 于何不臧?(저번 월식은 흔히 있는 일이라지만 이번 일식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라고 했다.

- [11] 靜은 조용하다, 안정되다의 뜻이다. 《書·大誥》에 “有大艱於西土, 西土人亦不靜(서쪽 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서쪽 땅 사람들이 또한 안정되지 못하니)”라고 했다.
- [12] 子居(2013b): 稱은 부합하다, 상응하다의 뜻이다. 《詩·曹風·候人》에 “彼其之子, 不稱其服(저 간사한 자들은 그 옷이 행동과 어울리지 않네)”라고 했는데, 鄭玄 《箋》에 “不稱이라는 것은 德은 알은데 옷은 존귀한 것을 말한다.”⁶⁾고 했다.
- [13] 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다의 뜻이다. 《左傳·文公四年》에 “君子是以知出姜之不允於魯也(군자는 이 때문에 출강이 노나라에서 믿고 따름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라고 했는데, 杜預 《注》에 “처음에 尊貴함을 보이지 못하여 끝내 國人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했다⁷⁾”고 했다.
- [14] 盈은 여기서 만족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15] 儻은 '淺'의 통가로, 말을 듣지 않다, 불복종의 뜻이다.
- [16] 虐은 무절제하다의 뜻이다. 《書·泰誓中》에 “淫酗肆虐, 臣下化之(방탕과 술주정과 방종과 무절제를 일삼고 있으니 신하들도 이에 동화되어)”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무절제한 것을 虐이라고 한다.”고 했다.

【번역】

二啓에서 말하노니:

하늘은 가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니

天命을 게을리 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네.

6) 鄭玄 《箋》: “不稱者, 言德薄而服尊。”

7) 杜預 《注》: “始來不見尊貴, 故終不爲國人所敬信也。”

.....

순수한 德行을 지니지 않고는
 그 도모하는 바가 그릇되고 미혹될 뿐이니.
 安定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찌 安定될 수 있겠는가?
 職에 어울리지 않으며,
 남들이 믿고 따르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知足할 줄 모르면
,

스스로 백성의 불복종과 방종을 초래하리니.
 국가는 이로 인해 安寧하지 못하게 된다네.

[간문2]

凡佳(惟)君子, 尙藍(鑒)[1]于先[2]舊[3]。道[4]讀(瀆) [5]善 斂
 (敗), 卑(俾) [6] 隍(匡)[7]以戒[8]。□□ 衿(功) 祿(績)
 [9], 彝(恭) 鬯(潔)[10]官(享)祀[11]。和[12]惠(德)定[13]型(刑)[1
 4], 政(正)[15]百又(有)司。疋(胥)[16] 悛(訓)疋(胥) 季(教), 疋
 (胥) 哉(裁)[17]疋(胥) 愆(誨)[18]。各 惹(圖)[19]畢(厥)美
 (祥)[20], 以[21]交[22]罔[23] 患(謀)[24]。天之[25]所 韞(壞), 莫
 之能枳(支)。天之所枳(支), 亦不可 韞(壞)。反反(板板)[26]元(其)亡(無)
 成[27], 甬(用)[28] 隍(匡)[29]可(何)畏(威) [30]? 惠(德)型(刑)態(怠)
 統(惰)[31], [32]民所[33]詬(妖) [34]訛(比) [35]。

【주석】

- [1] 鑒은 본보기로 삼다, 참고하다의 뜻이다. 《論語·八佾》에 “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周나라는 夏와 殷 두 왕조를 본받았으니, 그 문화가 더욱 찬란하구나!”라고 했다.
- [2] 先은 선인의 뜻이다.
- [3] 舊는 과거의 典章제도를 말한다. 《書·武成》에 “乃反商政，政由舊(이에 상나라 정치를 뒤집고 옛 선왕의 정치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孔安國 《傳》에 “紂의 惡政을 뒤집고 商나라 先王의 善政을 따르다8)”라고 했다.
- [4] 道는 道德, 道義를 말한다.
- [5] 瀆은 ‘瀆’의 통가로, 파괴되어 무너지다의 뜻이다. 《逸周書·文酌》에 “七事：一騰咎信志，二援拔瀆謀，三聚疑沮事(일곱 가지 일이란 첫째 기복은 사람의 뜻을 펼치게 하고, 둘째 남의 도움을 빌어 발탁되면 자신의 도모하는 바가 파괴되고, 셋째 의심이 쌓이면 일을 방해하고)”라고 했는데, 朱右曾 《校釋》에 “瀆은 파괴되어 무너지다의 뜻”이라고 했다.
- [6] 黃傑(2013): 卑는 ‘卑’의 통가로 추정되며, ~하게 하다의 뜻이다.
- [7] 整理者(2012): 罍 과 匡은 독음이 가깝고 의미가 통한다. <小雅·六月>에 “以匡王國(나라를 바로잡으시려는 걸세)”이라고 했는데, 鄭玄 《箋》에 “바로잡다의 뜻”이라고 했다.
- [8] 戒는 《說文》에서 “경계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廣韻·怪韻》에서는 “삼가다의 뜻”이라고 했다.
- [9] 整理者(2012): 《荀子·王霸》에 “名聲若日月，功績如天地(명성은 해와 달 같고 공적은 하늘과 땅 같으며)”라고 했는데, 功績은 공적을 말한다.
- [10] 鄔可晶(2013): 潔 은 ‘潔’의 통가다.
- [11] 鄔可晶(2013): 恭潔享祀는 제사를 공경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받들 것

8) 孔安國 《傳》：“反紂惡政，用商先王善政。”

을 강조한 것이다.

- [12] 和는 조화롭게 하다는 뜻이다. 《說文·龠部》에 “蘇는 조화롭다의 뜻”이라고 했는데, 段玉裁 《注》에 “經傳에서 和는 주로 蘇의 통가로 쓰였다”고 했다.
- [13] 定은 맞게 고치다는 뜻이다. 《字彙·宀部》에 “定은 맞게 고치다의 뜻”이라고 했다. 《商君書·更法》에 “禮法以時而定, 制令各順其宜(예와 법은 시기에 맞게 고쳐야 하며, 제도와 명령은 모두 사회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하며)”라고 했다.
- [14] 定刑은 正刑과 같으며, 刑律을 바르게 하다는 뜻이다. 《禮記·王制》에 “司寇正刑明辟, 以聽獄訟(司寇는 형벌을 바르게 하고 죄를 밝혀서 옥송을 처리하는데)”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正刑明辟라는 것은 司寇가 마땅히 刑書를 바르게 하여, 죄를 명백하게 판단하고 형이 공평하여 차등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법이 사악함에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른다9)”고 했다.
- [15] 正은 다스리다는 뜻이다. 《禮記·經解》에 “禮之於正國也, 猶衡之於輕重也(예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저울로써 경중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 [16] 胥는 모두, 다의 뜻이다.
- [17] 哉는 ‘哉’자로 풀이해야 하며, 이는 ‘裁’의 통가로, 가르치다, 기르다의 뜻이다. 이는 ‘裁制(재단하다)’에서 파생된 의미이다. 《論語·公冶長》에 “子在陳, 曰: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시면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은 뜻은 크나 일에는 소략하고, 빛나게 문장은 이루었으나 어찌 마름질해야 할지 모르겠구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 [18] 黃傑(2013)은 𠄎를 ‘誨’의 통가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誨는 가르쳐 지도하다는 뜻이다. 《說文·言部》에 “가르쳐 깨닫게 하다는 뜻”이

9) 孔穎達 《疏》: “正刑明辟者, 謂司寇當正定刑書, 明斷罪法, 使刑不差二, 法不傾邪。”

- 라고 했다.
- [19] 圖는 도모하다의 뜻이다. 《爾雅·釋詁一》에 “圖는 도모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 [20] 羨은 ‘祥’의 통가이다. 《爾雅·釋詁上》에 “祥은 선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說文·示部》에서도 “祥은 선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 [21] 以는 접속사로, 순접의 의미를 나타내며, ‘而’에 해당한다.
- [22] 交는 다, 모두의 뜻이다. 《小爾雅·廣言》에 “交는 다의 뜻”이라고 했다. 《玉篇·交部》에 “交는 함께의 뜻”이라고 했다. 《書·禹貢》에 “四海會同, 六府孔修, 庶土交正, 底慎財賦(온 세상이 임금님께 굴복하게 되고, 여섯 가지 중요한 물자들이 잘 다스려져, 모든 고장이 다 같이 바로잡히었다. 재물과 부세를 신중히 다루어)”라고 했는데, 孔安國《傳》에 “交는 다의 뜻”이라고 했다.
- [23] 罔은 없다의 뜻이다. 《爾雅·釋言》에 “罔은 없다의 뜻”이라고 했다.
- [24] 謀는 ‘謀’의 통가로, 이는 본고 상편 【간문7】에 나오는 “謀猷惟戒”의 ‘謀’(각종 음모와 계략)와 같은 뜻이다.
- [25] 整理者(2012): “天之”로 시작하는 두 句는 다른 典籍에도 보이는데, 문자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左傳》定公元年에 “天之所壞, 不可支也(하늘이 무너뜨리고자 하면 가히 지탱할 수 없다)”고 했으며, 《國語·周語下》에 衛나라 彪溪가 單穆公을 만나자 “周詩有之曰: ‘天之所支, 不可壞也. 其所壞, 亦不可支也.’ 昔武王克殷而作此詩也, 以爲飢歌, 名之曰支(周詩에 ‘하늘이 받쳐 주는 자는 누구도 그를 허물 수 없으나, 역시 하늘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지탱해 줄 수 없네.’라고 했다. 옛날 무왕이 은을 쳐 이길 때 이 시를 지어 飢歌로 삼고 이름을 ‘支’라 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 [26] 整理者(2012): 反反은 ‘板板’의 통가이다. <大雅·板>에 “上帝板板, 下民卒癩(하늘마저 이랬다저랬다 하면 백성들은 모두 병들어 지치네)”라고 했는데, 毛傳에 “板板은 뒤집다(反)의 뜻”이라고 했다. 孔穎達

《疏》에 “<釋訓>에서 말하기를 ‘板板은 비정상이다의 뜻’이라고 했다. 비정상은 곧 정상에서 벗어나다의 뜻이기 때문에 反이라고 한다¹⁰⁾”고 했다.

- [27] 無成은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 [28] 用은 介詞로 ‘以’에 해당하며, ~로써를 의미한다.
- [29] 匡은 바르게 하다의 뜻이다.
- [30] 畏는 ‘威’의 통가로, 위엄, 위신의 뜻이다.
- [31] 整理者(2012): 紘과 術은 모두 ‘尢’을 聲符로 한다. 고문헌에서 術과 隊가 서로 통하고, 墜와 墮도 서로 통하는 바 ‘紘’과 ‘惰’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 [32] 整理者(2012): ‘態紘’은 곧 怠惰다. 《逸周書·大匡》에 “慎惟怠愒(게으름과 타락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愒’은 ‘惰’와 같다.
- [33] 沈培(2013): ‘所’는 ‘~로써’의 뜻으로 쓰였다.
- [34] 整理者(2012): 《荀子·非十二子》에 “則可謂詖怪狡猾之人矣(곧 요사스럽고 교활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楊倞 《注》에 “詖와 妖는 같다”고 했다.
- [35] 誑는 ‘比’의 통가로, 작당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다의 뜻이다. 《玉篇·比部》에 “比는 아첨하여 한패가 되다의 뜻”이라고 했다. 《論語·爲政》에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군자는 두루 사귀지만 당파를 만들지 않고, 소인은 당파를 만들고 두루 사귀지 못하느니라)”고 했는데, 朱熹 《注》에 “比는 당파를 만들다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君子들이여,

10) 孔穎達 《疏》: “《釋訓》云: ‘板板, 僻也. 邪僻卽反戾之義, 故爲反也.’”

선인들을 본받고 선대의 제도를 본보기로 삼기 바라네.
 道義가 무너지고, 좋은 것들이 파괴되니
 그것들을 바로잡고 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네.

.....

공경히, 마음도 정결히 제사를 받들지어다.
 恩德을 조화롭게 하고, 刑律을 바르게 하여
 百官을 다스릴지어다.
 모두를 훈계하고 가르쳐,
 모두를 가르치고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고
 모두 음모와 간사한 꾀를 부리지 않게 할지니.
 하늘이 무너뜨리려 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지탱할 수 없고,
 하늘이 지지하고자 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네.
 자신은 常道를 벗어나고 아무런 이론 것도 없으면서
 이로써 남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어찌 위엄이 서겠는가?
 恩德과 刑罰이 태만해지고 해이해짐으로써
 백성들은 요사한 행동을 하고 작당해 사리사욕을 꾀하게 된다네.

[간문3]

約結 纆 (繩) 剴 (準)[1], [2]民之 闡 (關) 閔(閉)[3]。女(如)
 闡 (關) 椀[4] 屋 (扃)[5] 鍤 (鍵)[6], 纆 (繩) 剴 (準) 旣政
 (正), 而五 桴 (相)[7] 柔[8] 訖(戔)[9], 鬲(適)[10] 易[11] 兇心。 覓
 (研)[12] 慤 (甄)[13] 嘉惟, 料 (調) [14] 和庶民。 政命(令) 惠(德) 型(刑),

各又(有) 崇(常) 朱(次)[15]。邦元(其)康 盜(寧), 不奉(逢)庶
 慙(難)。年穀(穀)焚(紛)[16]成, 風雨(時)至。此[17]佳(惟)天所建, 佳(惟)
 四方所 鬻(祗)畏[18]。曰元(其)罰(時)[19] 豐(當)[20], 元(其)惠
 (德)型(刑)義(宜)[21]利[22]。

【주석】

- [1] 劃 은 沈培(2013)가 ‘準의 통가라고 한 주장을 따른다. 표준, 준칙의 뜻이다. 《荀子·致士》에 “程者, 物之準也; 禮者, 節之準也(도량형의 총칭인 程은 물건을 재는 기준이고, 예의란 신분에 절도를 매기는 기준이다.)”라고 했다.
- [2] 約, 結, 繩, 準은 4개의 명사가 병렬된 구조로, 사회규범과 제도를 가리킨다. 《禮記·學記》에 “大信不約(큰 믿음은 약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約은 기약함을 이른다.”고 했다. 《原本玉篇·糸部》에 “結은 《淮南》에 ‘君子行斯乎其所結(군자는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정해진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許叔重은 ‘結은 정해진 바의 뜻’이라고 했다.” 繩은 준칙, 법도의 뜻이다. 《荀子·王霸》에 “百吏畏法循繩, 然後國常不亂(여러 관리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법도를 따른다면 나라는 언제나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 [3] 整理者(2012): 關과 閉는 본래 문의 빗장을 가리킨다. 《說文通訓定聲》에 “세로 나무는 閉라 하고, 가로 나무는 關이라 한다.”고 했다.
- [4] 椈은 ‘閉의 통가다. 문을 닫아 걸 때 자물쇠를 달기 위해 가운데 세우는 세로 나무다. 즉 《說文通訓定聲》에서 “豎木爲閉(세로 나무를 閉라고 한다)”의 ‘閉를 말한다.
- [5] 整理者(2012)는 扃 은 ‘扃의 통가이며, 상고음이 모두 見母耕部라고 했다. 扃은 밖에서 문을 잠그는 빗장이다. 《說文·戶部》에 “扃은

바깥에서 잠그는 關”이라고 했다.

- [6] 鑿은 ‘金’과 ‘𠂔’ 聲符로 이루어진 글자로, ‘鍵’로 풀이해야 한다. 王筠 《說文句讀·戶部》에 “扃과 木部の 鍵은 안과 밖으로 상대되는 것으로, 모두 자물쇠를 말한다. 문 안에 있는 것을 鍵이라 하고 문 밖에 있는 것을 扃이라 한다.”¹¹⁾고 했다. 鍵과 扃은 본래 자물쇠인데, 나무로 된 것을 ‘扃’이라 하고 쇠로 된 것을 ‘鍵’이라고 한다. 여기서 鍵은 동사로 쓰여, 닫아 잠그다의 뜻이다.
- [7] 馬楠(2013)은, 《禮記·曲禮下》에 “天子之五官, 曰司徒、司馬、司空、司士、司寇, 典司五衆(天子的 五官을 일러 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관부의 여러 관원 속리의 무리를 맡아 다스린다)”고 했는데, ‘五相’은 바로 <曲禮>에서 말한 ‘五官’이다 라고 했다. 이곳의 ‘五相’은 위 【간문2】에 나오는 ‘百有司’를 말하며, 여러 관리들을 가리킨다.
- [8] 整理者(2012): 柔는 《爾雅·釋詁》에 “편안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 [9] 整理者(2012): 訖는 ‘比’의 통가로, 《逸周書·文酌》에 “往來取此(比)(왕래는 친밀해야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朱右曾 《集訓校釋》에 “比는 친밀하다(親)의 뜻”이라고 했다.
- [10] 譎은 ‘譎’의 통가로, 변화하다를 의미한다. 《文選·張衡<東京賦>》에 “玄謀設而陰行, 合二九而成譎((왕망이) 심오한 계책을 세우고 몰래 행한지 18년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李善 《注》에 “譎은 변화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 [11] 整理者(2012): 易은 《史記·樂書》에 “移風易俗(옛 풍속을 변화시키다)”라고 했는데, 張守節 《正義》에 “易은 바꾸다를 말한다”고 했다.
- [12] 整理者(2012): 覈은 ‘研’의 통가다. 《易·繫辭下》에 “能研諸侯之慮(제후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11) 王筠 《說文句讀·戶部》: “扃與木部鍵, 蓋內外相對, 皆關閉之器。在門內者謂之鍵, 在門外者謂之扃也。”

- “研은 정통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文選·張衡<東京賦>》에 “研核是非(시비를 정밀하게 조사하다)”라고 했는데, 薛綜 《注》에 “研은 살피다의 뜻”이라고 했다.
- [13] 甄은 심사하여 가리다, 식별하다는 뜻이다. 《廣韻·仙韻》에 “甄은 살피다(察)의 뜻”이라고 했다.
- [14] 料는 調의 통가로, 《說文·言部》에 “調는 조화롭다는 뜻”이라고 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화합하게 하다는 뜻이다.
- [15] 整理者(2012)는 ‘次’가 ‘次’와 통한다고 했으며, 次는 차례, 순서의 뜻이다. 《國語·周語中》에 “抑晉國之舉也, 不失其次, 吾懼政之未及子也(진나라에서 사람을 거용할 때 그 차례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니 내 그대의 차례가 되지 않았음이 걱정스럽군요)”라고 했다.
- [16] 整理者(2012): ‘紜’는 ‘紛’과 통한다. 《易·巽》에 “用史巫紛若(그래서 史와 巫가 성한 것 같다)”고 했는데, 陸德明 《釋文》에 “紛은 盛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 [17] 此는 約結繩準¹²⁾, 즉 사회규범과 제도를 가리킨다.
- [18] 祗畏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書·金縢》에 “用能定爾子孫於下地, 四方之民, 罔不祗畏(아래 땅에서 당신들 자손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온 세상 백성들은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 [19] 王瑜楨(2015): 時는 선하다, 적합하라는 뜻이다.
- [20] 王瑜楨(2015): 當은 적당하라는 뜻이다.
- [21] 宜는 적절하다, 적당하라는 뜻이다. 《玉篇·宀部》에 “宜는 적당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呂氏春秋·當賞》에 “主之賞罰爵祿之所加者宜, 則親疏遠近賢不肖, 皆盡其力而以爲用矣(군주가 상벌과 작록을 베푸는 것이 적당하면 친밀한 자와 소원한 자,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그리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가 자신들의 힘이 다하도록

12) 【간문3】 【주석】 [13] 참조

(군주에게) 쓰일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高誘 《注》에 “宜는 적당하다와 같다”고 했다.

[22] 利는 적절하다, 적합하다는 뜻이다. 《國語·魯語下》에 “子股肱魯國, 社稷之事, 子實制之。唯子所利(그대는 노나라의 股肱之臣으로서 사직의 큰일은 그대가 실권을 가지고 처리해 왔소. 그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대로 하시오)”라고 했다.

【번역】

사회 규범과 제도는

백성을 방비하고 제약하는데 있어 관건이라네.

만약 문의 안과 밖에 자물쇠와 빗장이 잘 갖추어지고

法令이 완벽해지면

관리들이 유순해지고 친하게 따르며

악한 마음도 바꾸게 된다네.

그들은 좋은 지모와 책략을 잘 식별하고

백성들과 잘 협조하며 이들이 화목하도록 한다네.

政策과 法令, 恩德과 刑罰이

모두 각기 정상적인 질서가 있어야

나라가 안녕해지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네.

오곡이 풍성해지고

비바람이 시의적절할 것이네.

政令과 德刑같은 사회제도와 규범은 모두 하늘이 세운 바이니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네.

하늘이 정해 놓은 罰은 時宜에 맞고 합당하며

상과 벌은 모두 적합하다네.

[간문4]

女(如) 闡 (關) 桡不闕(閉), 而 纆 (繩) 剗 (準) 達 (失) 桡
 [1]. 五 桷 (相) 不疆 (疆) [2], 罔肯(肯) 獻言. 人頌[3] 攷(扞)[4] 舊
 (違), 民乃 翌 (佻) [5] 囂 (敖) [6], 桡 (靡) 所并(屏)[7] 袞
 (依)[8]. 日月星辰(辰), 甬(用) 交[9] 躡 (亂) 進退, 而莫 旻 (得) 元(其)
 朂 (次). 戡 (歲) 迺(乃) 不戾(度)[10], 民甬(用) 戾[11] 殫
 (盡)[12], 容 (咎) 可(何) 元(其) 女(如) 忒 (台) 綏 (哉) !

[주석]

- [1] 整理者(2012): 桡는 《說文·木部》에 “법도의 뜻”이라고 했는데, 段玉裁 《注》에 “이는 手部的 ‘揆’자와 音義가 같으며, ‘揆’자가 전용되면서 ‘桡’자가 폐지되었다.”¹³⁾고 했다.
- [2] 整理者(2012): 疆은 ‘疆’의 통가이다. 《爾雅·釋詁》에 “疆은 부지런하다(勤)의 뜻”이라고 했다. 《孟子·梁惠王下》에 “疆爲善而已矣(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입니다)”라고 했는데, 焦循 《正義》에서 《淮南子》 高誘 《注》를 인용하여 “疆은 힘쓰다의 뜻”이라고 했다.
- [3] 頌은 후에 ‘容’이라고 썼으며, 禮儀, 法度を 말한다. 《廣雅·釋詁一》에 “容은 법도의 뜻”이라고 했다.
- [4] 攷은 ‘扞’의 통가로, 저촉되다, 위반하다의 뜻이다. 《史記·遊俠列傳序》에 “以余所聞, 漢興有朱家、田仲、王公、劇孟、郭解之徒, 雖時扞

13) 段玉裁 《注》: “此與手部揆音義皆同, 揆專行而桡廢矣。”

當世之文罔，然其私義廉絜退讓，有足稱者(내가 들은 바로는 한나라가 일어난 뒤, 朱家, 田仲, 王公, 劇孟, 郭解 등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비록 때로 당시의 법을 위반하였을지라도 개인의 품덕, 청렴, 겸양에서는 죽히 칭찬할 만하다.)”고 했는데, 司馬貞 《索引》에 “扞은 곧 捍이며, 當代의 法網에 저촉되는 것을 法禁을 犯하다”라고 한다¹⁴⁾”고 했다.

- [5] 僇는 ‘佻’의 통가로, 경박하고 방종하다는 뜻이다. 《爾雅·釋言》에 “佻는 경박하다(儻)의 뜻”이라고 했는데, 郭璞 《注》에 “소홀히 하다는 말한다.”고 했다. 《左傳·昭公十年》에 “《詩》曰：‘德音孔昭，視民不佻(《詩·小雅·鹿鳴》에 이르기를 ‘밝은 덕을 가진 군자는 백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라고 했다.)”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백성을 대함에 있어 가볍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¹⁵⁾”라고 했다. 《楚辭·離騷》에 “余猶惡其佻巧(나는 또 그 가볍고 경박한 기교가 싫도다)”라고 했는데, 王逸 《注》에 “佻는 가볍다는 뜻”이라고 했다.
- [6] 嚮는 ‘敖’ 또는 ‘傲’의 통가로, 오만하다, 방자하다는 뜻이다.
- [7] 屏은 막다, 보호하다는 뜻이다. 《左傳·襄公二十九年》에 “晉國不恤周宗之闕，而夏肄是屏(진나라가 주나라와 동종인 나라는 구휼하지 않고 하나라의 후예(기나라)만 비호하니)”라고 했다.
- [8] 依는 기대다, 의지하다는 뜻이다.
- [9] 交는 다, 모두의 뜻이다. 이 ‘交’字는 위 【간문2】에 나오는 “以交罔謀(모두 음모와 간사한 꾀를 부리지 않게 할지어다.)”의 ‘交’와 같은 용법이다.
- [10] 不度는 법도에 맞지 않음을 뜻한다. 《左傳·隱公元年》에 “今京不度，非制也(지금 경 땅은 법도에 맞지 않아 선왕의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杜預 《注》에 “법도에 맞지 않으면 선왕의 제도가 아니다¹⁶⁾”라고 했다.
- [11] 整理者(2012): 扞는 《戰國策·趙策二》에 “而齊爲虛戾”라고 했는데,

14) 司馬貞 《索引》: “扞, 卽捍也。違扞當代之法網, 謂犯於法禁也。”

15) 孔穎達 《疏》: “其視下民不儻薄苟且也。”

16) 杜預 《注》: “不合法度, 非先王制。”

鮑彪 《注》에 “戾는 질병(疾)의 뜻”이라고 했다. 《墨子·天志中》에 “疾菑戾疫凶饑則不至(질병과 역질 및 흉년과 기근 등이 닥치지 않도록 하늘이 배려한 이유다)”라고 했는데, 孫詒讓 《閒詁》에 “戾는 厲字와 통한다.”고 했다.

[12] 整理者(2012)는 “殄 은 ‘歹’과 ‘𠂔’ 聲符로 이루어진 글자로 ‘盡’의 통가이며, 《玉篇·皿部》에 ‘盡은 마치다의 뜻’이라 했다”고 했다. 盡은 죽다의 뜻이다. 《史記·扁鵲倉公列傳》에 “後五日死者, 肝與心相去五分, 故曰五日盡, 盡即死矣(닷새 만에 죽는다고 말한 것은 肝과 심장의 거리가 다섯 치 떨어져 있어서 5일이면 다한다고 하는데, 다한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했다.

[번역]

만일 문의 빗장을 잠그지 않으면
 法令이 법도를 잃게 되고,
 관리들이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며
 진언을 꺼리게 되리니.
 또 백성들이 예의 법도를 어기게 되고
 이에 경박해지고 오만해져
 보호 가림막이 없어지게 될지니.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운행규칙이 어지러워지고
 더 이상 정연하게 운행되지 못하게 되리니.
 시간은 常規에 부합되지 않고
 백성들은 이로 인해 역병이 번져 죽게 될 것이니
 그 죄가 얼마나 크단 말인가!

【간문5】

秦(朕)佳(惟) 潛 (沖)人, 則女(如)禾之又 (有) 秬 (稗)[1]。非穀
 [2]折(哲)[3]人, 虐 (吾) 楚 (靡)所爰(援)[4]{以}[5]詣[6]。我之不
 言, 則畏天之發幾(機) [7]。我元(其)言矣, 則 愿 (屑)[8]者不 慙
 (美)[9]。民亦又 (有) 言曰: 患 (謀)亡(無)少(小)大, 而器不再 (在)
 [10]利[11]。屯[12]可與 忝 (願)[13], 而鮮[14]可與惟[15]。曰於(鳴)
 虐 (呼)畏 綏 (哉) ! 言深(深)于 淵 (淵), 莫之能測(測)。民多勤
 (艱)慙(難), 我心不快, 戾[16]之不□□。

【주석】

- [1] 整理者(2012): 稗는 《說文·禾部》에 “어린 벼의 뜻”이라고 했다.
 [2] 穀은 어린아이의 뜻이다. 《莊子·駢拇》에 “臧與穀, 二人相與牧羊而俱
 亡其羊(臧과穀은 두 사람이 다 양을 치고 있다가 모두 그 양을 잃고 말
 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陸德明 《釋文》에 “穀은 崔本에는 穀이라고
 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를 穀이라 한다.’고 했다.¹⁷⁾”
 [3] 整理者(2012): 哲은 《詩·小雅·鴻雁》에 “維此哲人(이 지혜로운 사람
 들은)”이라고 했는데, 朱熹 《集傳》에 “哲은 알다의 뜻”이라고 했다.
 [4] 援은 인용하다, 인증하다의 뜻이다. 《禮記·緇衣》에 “臣儀行不重辭,
 不援其所不及(신하가 본보기가 될 행동을 하고 말을 거듭하지 않으며,
 관계가 없는 일은 인용하지 않으며)”라고 했는데, 鄭玄 《注》에 “援은
 인용하다와 같다”고 했다.
 [5] ‘爰’과 ‘詣’ 사이의 글자가 불분명하여 알아보기 어려운데 문맥의미로 ‘以’
 字로 추정되어 이를 보충한다.

17) 陸德明 《釋文》: “穀, 崔本作穀, 云: ‘孺子曰穀.’”

- [6] 整理者(2012): 詣는 《小爾雅·廣詁》에 “詣는 나아가다의 뜻”이라고 했다.
- [7] 子居(2013b)는 發機가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發機는 하늘이 재앙을 내려 징벌하기 시작함을 비유한 말이다.
- [8] 愿 은 ‘心과 屑’ 聲符로 이루어진 글자로, ‘屑’은 곧 ‘屑’字이다. 愿 은‘屑’의 통가이며, 자질구레한 것을 의미한다. 《荀子·儒效》에 “今有人於此, 屑然藏千溢之寶, 雖行賁而食, 人謂之富矣(어떤 사람이 구두쇠 노릇을 하며 자질구레하게 모아 2만 냥이나 되는 보배를 감추고 있다면 비록 길거리에서 구걸하여 먹고 지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자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王先謙 《集釋》에서 郝懿行을 인용하여 “屑은 자질구레하게 작은 모양”이라고 했다.
- [9] 美는 선하다, 좋다는 뜻이다. 《國語·晉語一》에 “彼將惡始而美終(그러한 행동은 악으로 시작을 했으나 그 끝은 선한 것으로써)”라고 했는데, 韋昭 《注》에 “美는 선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 [10] 再는 ‘在’의 통가로, ~에 있다, ~에 달렸다는 뜻이다. 《書·皐陶謨》에 “皐陶曰: ‘都, 在知人, 在安民’(고요가 말하였다. ‘아아! 정치는 사람을 올바르게 알아보는데 달렸으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달렸습니다)’”라고 했다.
- [11] 利는 좋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玉篇·刀部》에 “利는 선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漢書·高帝紀下》에 “與利田宅(좋은 농지와 전답을 주었는데)”라고 했는데, 顏師古 《注》에 “利는 편리하고 좋다는 말한다.”고 했다.
- [12] 整理者(2012): 屯은 ‘皆’로 풀이되며, 총괄의 의미를 나타낸다.
- [13] 愿 은 ‘願’의 통가로, 희망하다, 바라다는 뜻이다. 《方言》卷一에 “願은 하고자 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 [14] 鮮은 적다는 뜻이다. 《爾雅·釋詁》에 “鮮은 적다는 뜻”이라고 했다.
- [15] 惟는 생각하다는 뜻이다. 《爾雅·釋詁下》에 “惟는 생각하다는 뜻”이

라고 했다. 《說文·心部》에 “惟는 모든 생각의 뜻”이라고 했다. 《詩·大雅·生民》에 “載謀載惟, 取蕭祭脂(생각하고 생각하며 쉼과 소기름으로 제사를 지내고)”라고 했는데, 鄭玄 《箋》에 “惟는 생각하
다의 뜻”이라고 했다.

[17] 戾는 안정되다의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 《爾雅·釋詁下》에 “戾는 그
치다의 뜻”이라고 했다. 《廣雅·釋詁四》에 “戾는 안정되다의 뜻”이라
고 했다. 《書·康誥》에 “今惟民不靜, 未戾厥心(지금 백성들은 안정
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며)”라고 했는데, ‘戾之’는 즐
겁지 못한 마음이 편안해지다를 말한다.

【번역】

나는 나이 어리고 지혜롭지도 못하여
마치 곡식의 어린 싹과 같다네.
나는 나이 어리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못되어
훌륭한 말을 가져다 그대들에게 진헌할 수 없다네.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자니
하늘이 장치 재앙을 내릴까 두렵고
내가 말을 하고자 하니
자질구레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네.
백성들의 속담에 이르기를
지모와 책략은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고
기물은 보기 좋음을 가리지 않는다 하니
모든 이가 그대와 다가올 날을 전망할 수는 있지만
그대가 더불어 이를 도모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네.
아아! 경외하라!

이런 말들은 깊은 연못보다도 더 깊어
 그 누구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네.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내 마음 즐겁지 못하다네.
 즐겁지 못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간문6】

亡(無)父母能生, 亡(無)君不能生。吾 审 (中)心念註(絀)[1], 莫我或
 聖(聽)。 虞 (吾) 忒 (恐) 辜 (罪) 之{及}身[2], 我之不□。□□是
 達 (失), 而邦受元(其)不 寧 (寧)。 虞 (吾) 甬(用) 复 (作) 訛
 (蹇)再父(終¹⁸), 以寓[3]命[4]達[5]聖(聽)。

【주석】

- [1] 整理者(2012): 《楚辭·九章·哀郢》에 “心絀結而不解兮(마음은 멩혀
 답답하게 풀리지 않고)”라고 했는데, 王逸 《注》에 “絀는 걸다의 뜻”이
 라고 했다.
- [2] 子居(2013b)는 ‘之’와 ‘身’ 사이에 ‘及’을 추가했다. 이 주장을 따른다.
- [3] 整理者(2012): 寓는 기탁하다의 뜻이다. 《管子·小匡》에 “事有所隱,
 而政有所寓(군사의 일은 감추는 것이 있고, 政事는 감추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4] 命은 가르치다의 뜻이다. 《廣韻·映韻》에 “命은 가르치다의 뜻”이라고
 했다. 《孟子·滕文公上》에 “夷子憮然爲問曰:‘命之矣’(夷子が 멩하니

18) 作蹇再終에 대해서는 본고 상편 【간문1】 의 【주석】 [13]과 주17)에서 설명하였다.

한참 있다가 말했다. ‘가르침을 잘 받았소!’라고 했는데, 趙岐 《注》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같은 뜻¹⁹⁾”이라고 했다. 朱熹 《集註》에 “命은 가르치다와 같은 뜻으로, 孟子가 이미 나를 가르쳤구나! 라는 뜻²⁰⁾”이라고 했다.

- [5] 達은 전달하다, 보내다의 뜻이다. 《國語·吳語》에 “寡人其達王於甬句東, 夫婦三百, 唯王所安, 以沒王年(과인은 그대를 용구의 동쪽 작은 땅으로 보내겠노라. 그리하여 3백 쌍의 부부를 주어 그대의 시종으로 삼아 천수를 다하고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라고 했는데, 韋昭 《注》에 “達은 이르다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父母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君主는 없으면 生存할 수 없다네.
 나는 근심 걱정이 마음속 가득한데
 아무도 내말에 귀 기울이는 이 없다네.
 나는 재앙이 내게 미칠까 두렵기만 하네.
,

국가도 화를 당해 편하지 못할까
 그리하여 경계의 시 두 수를 지어 충고를 기탁하니
 잘 전달되어 그대들이 듣기 바란다네.

19) 趙岐 《注》: “命之, 猶言受命教矣。”

20) 朱熹 《集註》: “命, 猶教也, 言孟子已教我矣。”

3. <芮良夫毖> 발굴의 의미

《詩經》에는 서주 중기 이후와 동주 초기 무렵 나라가 어지럽고 환란에 처한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고달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시는 흔히 諷刺詩, 또는 怨刺詩로 일컬어지는데 시대상황을 풍자 또는 원망하고 고단한 삶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한 작자의 근심과 우려와 더불어 통치계층에 대한 훈계와 경고, 즉 戒敕을 담고 있는 시들도 있다.²¹⁾ 여기서 戒敕은 毖와 의미가 통하는데, 馬芳(2015a)에 따르면, 그동안 알려진 《詩經》을 포함한 선진시에서 해당 시가 毖의 내용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清華簡 <周公之琴舞>와 <芮良夫毖>가 유일하다.²²⁾ 따라서 이들 逸詩의 발견은 앞으로 선진시기의 시를 연구함에 있어 '毖'로 대표되는 시, 즉 毖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芮良夫毖>는 형식에 있어 작자의 序가 포함된 형태를 갖고 있는 바, 이러한 序가 《尚書》 제 편의 序에 비견됨에 따라 <芮良夫毖>를 《尚書》류 문헌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²³⁾ 이를 선진 詩序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²⁴⁾ 이처럼 <芮良夫毖>의 출

21) 이러한 시들은 <小雅>와 <大雅>에 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 戒敕은 <大雅>편에 수록된 관련 시들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2) <周公之琴舞>: "作敬毖, 琴舞九卒." <芮良夫毖>: "作毖再終." 馬芳(2015a)은 이들의 경우 '毖'(혹은 '敬毖')로 전체 시를 지칭하고 있으며, 두 편의 시가 모두 유사한 경계의 내용으로 이는 '毖'(혹은 '敬毖')의 함의와도 일치하므로 '毖'(혹은 '敬毖')는 선진시기 儆戒詩의 명칭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 《詩經》에 나오는 詩類 용어와 《詩經》과 선진시기 기타 문헌에 나오는 '毖'字의 용례 분석을 통해 <周公之琴舞>와 <芮良夫毖>에 나오는 시의 명칭으로서의 '毖'는 전래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연구 자료라고 결론지었다.

23) 趙平安(2012)은 <芮良夫毖>가 먼저 背景을 기술하고 그런 후에 芮良夫의 勸誡之言을 말하는 兩段式의 구성을 택하고 있는 것을 먼저 背景을 기술하고 그 후에 君臣之言을 상세히 기록한 《尚書·周書》의 대다수 篇들과 그 구성이 유사함을 이유로 <芮良夫毖>를 《尚書》류 문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24) 姚小鷗(2014)는 <芮良夫毖> 앞의 '序'가 《毛詩序》에서 말하는 '小序'에 해당하며 先秦《詩序》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토는 선진 《詩》와 《書》류 문헌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 <芮良夫愬>의 출토는 작자를 통해 투영된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외에 당시의 하늘과 천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사회규범과 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부분은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영역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芮良夫愬>의 정확한 저작시기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²⁵⁾ 曹建國(2016)의 지적처럼, 현재 학계에서 이 작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문제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4. 맺음말

이상 <芮良夫愬> 2수 전문을 주해하고, 그 시대적 배경과 내용 및 이의 발굴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주요 목적이 국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위해 <芮良夫愬>를 주해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있었던 만큼 시의 내용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쳤다. 선진시기의 詩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물론, 《書》와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본 <芮良夫愬> 주해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5) 그동안의 연구에서 <芮良夫愬>는 간문 앞의 序에 “芮良夫乃作愬再終，曰：”이라고 한 것을 토대로 서주 말기 芮良夫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子居(2013b)와 曹建國(2016)은 사상, 어휘 또는 用韻 등 몇 가지 측면의 고찰을 통해 <芮良夫愬>가 서주 말기 이전의 작품이 아닌 춘추말기의 작품(子居) 또는 戰國 중기나 말기의 작품(曹建國)으로 추정했다. 본고에서는 (상)편 투고 시 子居가 정통 언어학자가 아니며 그의 주장이 언어학적으로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본 사안은 학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 李學勤主編,《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上海:中西書局,2012.
- 白於藍,《<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拾遺》,紀念何琳儀先生誕生七十週年暨古文字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13.08.01.-04.
- 蔡偉,《讀新見的出土文獻資料札記二則》,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2012.12.24.
- 曹建國,《清華簡<芮良夫 毖>試論》,《復旦學報》,2016-1期.
- 陳劍,《清華簡“戾災臯蠱”與《詩經》“烈假”、“罪罟”合證》,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陳鵬宇,《清華簡<芮良夫毖>套語成分分析》,《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4-2期.
- 陳偉武,《讀清華簡<周公之琴舞>和<芮良夫毖>零筭》,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程薇,《清華簡<芮良夫毖>與周厲王時期的外患》,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編《出土文獻》第三輯,中西書局,2012.(54-60p).
- 鄧佩玲,《談清華簡<芮良夫毖>“毖”詩所見之諍諫——與<詩>及兩周金文之互證》,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高中華·姚小鷗,《論清華簡<芮良夫毖>的文本性質》,《中州學刊》,2016-1期.
- 郭永秉,《釋清華簡中倒山形的“覆”字》,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侯乃峰,《清華簡(三)所見“倒山形”之字構形臆說》,簡帛網,2013.01.14.
- 黃傑(2013a),《初讀清華簡(叁)<芮良夫毖>筆記》,簡帛網,2013.01.06.
- 黃傑(2013b),《再讀清華簡(叁)<芮良夫毖>筆記》,簡帛網,2013.01.16.
- 李學勤,《新整理清華簡六種概述》,《文物》,2012-8期.
- 簡帛網·簡帛論壇·簡帛研讀,《清華簡(三)<芮良夫毖>初讀》帖.
- 馬芳(2015a),《從清華簡綱公之琴舞》、縮良夫黝 看“毖”詩的兩種范式及其演變軌迹》,《學術研究》,2015-2期.
- 馬芳(2015b),《從清華簡<芮良夫毖>看“毖”詩及其體式特點》,《江海學刊》,2015-4期.
- 馬楠,《<芮良夫毖>與文獻相類文句分析及補釋》,《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3-1期.
- 沈培,《試說清華簡<芮良夫毖>跟“繩準”有關的一段話》,《出土文獻與中國古代文明國際

- 學術研討會會議論文集》，北京：清華大學，2013.06.17.-18(237p).
- 蕭旭，〈清華簡〈芮良夫毖〉“富而無況”補證〉，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2013.03.09.
- 王坤鵬，〈清華簡〈芮良夫毖〉篇箋釋〉，簡帛網，2013.02.25.
- 姚小鷗，〈〈清華大學藏戰國竹簡·芮良夫毖·小序〉研究〉，《中州學刊》，2014.05-5期.
- 王瑜楨，〈〈清華三·芮良夫毖〉筭記〉，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2012.09.21.
- 王瑜楨，〈〈清華三·芮良夫毖〉“頽”字考——兼釋“盪和庶民”〉，第二十五屆中國文字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中國文字學會、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系，2014.05.16.-17.
- 王瑜楨，〈〈清華大學藏戰國竹簡(叁)·芮良夫毖〉釋讀〉，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編《出土文獻》第六輯，中西書局，2015.(184-194p).
- 鄔可晶，〈關於清華簡〈芮良夫毖〉簡18的“恭監享祀”〉，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論壇討論區，2013.02.07.
- 趙平安，〈〈芮良夫 毖〉初讀〉，《文物》，2012.8期.
- 趙平安，〈再論所謂倒山研的字及其用法〉，《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4-2期.
- 鐘瓊華，〈〈詩經·二雅〉周代晚期怨刺詩研究〉，國立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2010.
- 子居(2013a)，〈清華簡〈芮良夫毖〉簡序調整一則〉，孔子2000網站，2013.01.12.
- 子居(2013b)，〈清華簡〈芮良夫毖〉解析〉，孔子2000網站，2013.02.24.
- 가이즈카 외 저, 배진영 외 역, 《중국의 역사(선진시대)》, 서울: 혜안, 2011.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書經》, 서울: 명문당, 2012.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詩經》, 서울: 명문당, 2010.
- 양상원 외 저, 이원길 역, 《중국을 말한다 - 02 詩經 속의 세계》, 서울: 신원, 2008.
- 좌구명 저, 임동석 역, 《국어》, 서울: 동서문화사, 2013.
- 좌구명 저, 장세후 역, 《춘추左傳》,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최남규,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주서: 공자시론》, 서울: 소명출판사, 2012.
- 김석진, 〈중국 清華大學 소장 戰國시대 竹簡〉, 《목간과 문자》 7호, 2011.
- 김학주, 〈《詩經》을 중심으로 본 중국 고대의 예·악·무〉, 《한국무용사학》 13호, 2012.
- 김학주·김순희·이현정, 〈계찰관악(季札觀樂)을 통해 본 ‘악(樂)’의 의미와 지향〉, 《중국문학》 64집, 2010.
- 심성호, 〈先秦 詩·樂의 結合과 分離〉, 《中國語文學》 29집, 1997.6.
- 吳萬鍾(2013a), 〈〈清華簡·周公之琴舞〉之啓示〉, 《中國人文科學》 54輯, 2013.

오만중(2013b), <<大武>樂章論考>, 《中國人文科學》 55輯, 2013.
 이연주·張崇禮(2014), <清華簡「傳說之命」주해>, 《중국학논총》 46집, 2014.11.
 이연주·張崇禮(2015a), <清華簡「耆夜」주해>, 《중국학논총》 47집, 2015.02.
 이연주·張崇禮(2015b), <清華簡「周公之琴舞」주해>, 《중국학논총》 49집, 2015.08.
 이연주·張崇禮(2016), <清華簡「芮良夫嗾」주해(상)>, 《중국학논총》 51집, 2016.02.
 임봉선, <<小雅·采薇>연구>, 《詩經研究》 3집, 2004.

< Abstract >

Rui Liangfu Bi (<芮良夫嗾>) is one of ten old documents contained in the 3rd release of Tsinghua Bamboo Slips (清華簡) - a collection of Chinese texts dating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which was acquired in 2008 by Tsinghua University. Rui Liangfu Bi (<芮良夫嗾>) is written by Rui Liangfu(芮良夫) during the reign of Zhou King Li (厲王, 879 - 841 B.C.) of West Zhou and is one of the lost poems of the pre-Qin period. It contains the caution and admonition to the ruling class and the king while showing Rui Liangfu's concern about the disorder and confusion of the country. It is one of the typical expostulation poem(嗾詩) of the pre-Qin period. This paper makes an exegesis of the second piece and discusses the meaning of the excavation of the Rui Liangfu B i(<芮良夫嗾>).

Key words: Rui Liangfu Bi (芮良夫嗾), Rui Liangfu (芮良夫), King Li (厲王), Tsinghua Bamboo Slips (清華簡), Book of Odes (詩經), expostulation poem (嗾詩), satirical poem (諷刺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4. 12.	2016. 5. 30.	2016. 6. 13.	2016. 6. 17.	2016. 6. 30.